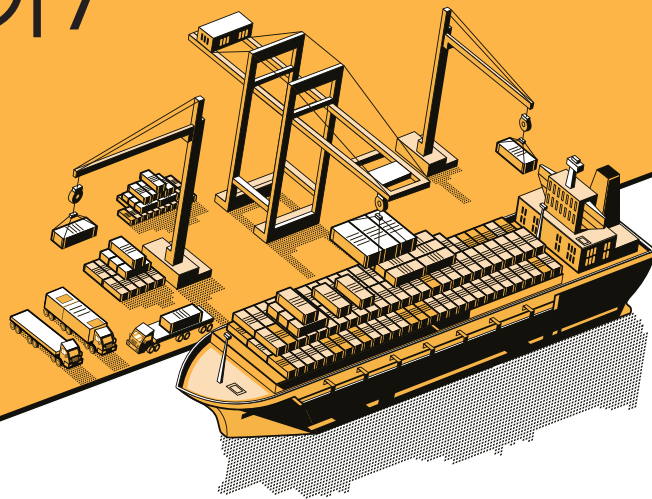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7

국제무역과 수출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외국 제품일 것이다. 50년 전만 해도 의류 섬유산업은 한국의 주요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 국내의 섬유산업은 점차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했다. 요즘 우리가 입는 의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러한 국내 섬유산업의 경험은 경제정책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무역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 이익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등의 문제다.

비교우위(比較優位)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교역을 통해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이익을 본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국제시장에서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이익이 여러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국제무역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알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 공급, 균형, 소비자잉여 등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 배웠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국제무역이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섬유시장을 생각해보자. 섬유시장은 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섬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며, 국제무역이 활발한 재화다. 특히 섬유시장은 예전에 각국 정부들이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무역장벽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도입한 적이 있는 시장이다. 아이소랜드(Isoland)라는 가상국가의 섬유시장을 생각해보자.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우선 아이소랜드의 섬유시장이 전 세계의 섬유시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아이소랜드의 어느 누구도 섬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 섬유시장에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소랜드의 섬유시장에는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존재한다.

[그림 1.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은 이 나라 섬유시장의 균형가격이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이 나라 섬유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리는 혜택의 총합이다.

이제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로 아이소랜드에 새로운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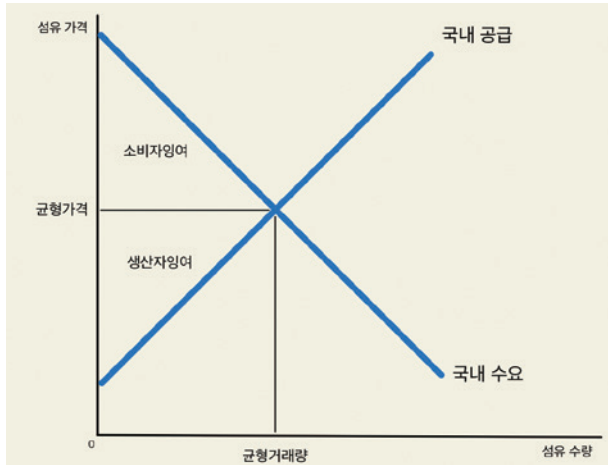


그림 1. 국제무역을 없는 경우의 균형

이 당선되었다고 하자. 새 대통령은 늘 그렇듯 변화와 과감한 새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첫 업무는 아이소랜드의 무역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회신을 요구했다.

-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 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겠는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수입 섬유에 대한 세금)를 부과해야 하는가?

아이소랜드의 경제전문가들은 그들이 즐겨 읽는 경제학 교과서의 수요 공급원리를 공부한 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분석에 착수했다.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소랜드가 섬유의 수출국이 될지, 수입국이 될지 밝혀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무역이 자유화된다면 아이소랜드 사람들이 섬유를 세계시장에 내다 팔 것인가, 세계시장에서 사 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아이소랜드의 현재 섬유 가격을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국제가격이라고 한다. 섬유의 국제가격이 아이소랜드의 국내가격보다 높다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 아이소랜드의 섬유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섬유를 판매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이소랜드의 국내 섬유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이다. 외국의 판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이소랜드의 섬유 수요자들은 당장 외국의 값싼 섬유를 수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교역이 시작되기 전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아이소랜드가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섬유의 국내가격은 섬유의 기회비용, 즉 아이소랜드 사람들이 섬유 한 단위를 얻기 위해 다른 물건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나타낸다. 국내가격이 낮다면 아이소랜드에서 섬유 생산비용이 낮고, 따라서 아이소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섬유 가격이 높다면 이는 아이소랜드의 섬유 생산비용이 높고,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아이소랜드에 비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 간의 교역은 궁극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각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품목에 특화할 수 있어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교역 이전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아이소랜드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섬유생산을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무역의 승자와 패자

자유무역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은 아이소랜드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이소랜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작은 경제라는 가정은 섬유시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아이소랜드는 작은 경제여서 아이소랜드의 무역정책이 세계 섬유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아이소랜드를 가격 수용자(price taker)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이소랜드가 세계 섬유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격에서 아이소랜드는 얼마든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이 작은 경제라는 가정은 국제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분석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소랜드 경제학자들

은 경험을 통해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 유용한 경제모형을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은 경제라 가정하면 분석이 훨씬 단순해진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는 복잡한 대규모 경제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림 2.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는 아이소랜드 섬유시장의 균형가격이 국제무역 이전의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은 상승하여 국제가격과 같아진다. 섬유 생산자 중 누구도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수요자도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공급되는 국내 공급량과 수요되는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은 아이소랜드에서 섬유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의 공급량을 나타내고, 수요곡선은 아이소랜드의 섬유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섬유 수요량을 나타낸다. 이 가격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소랜드는 남는 물량을 외국에 수출해야 한다. 즉 아이소랜드는 섬유의 수출국이 된다.

비록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지만, 섬유시장은 세계라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국제가격 수준에서 수평인 직선을 세계시장의 수요곡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이소랜드는 작은 경제이

므로 국제가격에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요곡선은 무한 탄력적이다.

이제 무역의 결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해보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해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이득을 본다. 그러나 국내 섬유 수요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해서 손실을 본다.

무역에 의한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기 위해 [그림 2.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에 나타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자. 교역이 시작되기 전의 국내가격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소비자 잉여는 A + B이고, 생산자잉여는 C이다. 따라서 무역이 없는 경우 총 잉여는 A + B + C이다.

무역이 개시되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한다. 소비자잉여는 이제 A이고, 생산자잉여는 B + C + D이다. 따라서 총 잉여는 두 면적의 합 A + B + C + D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후생 변화는 국제무역의 결과 수출국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 말해준다. 생산자잉여가 B + D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고, 수요자들은 소비자잉여가 B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얻는 추가적인 잉여가 수요자들이 상실하는 잉여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소랜드의 총잉여는 증가한다. 수출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에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수출국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을 본다.
- 국제무역의 결과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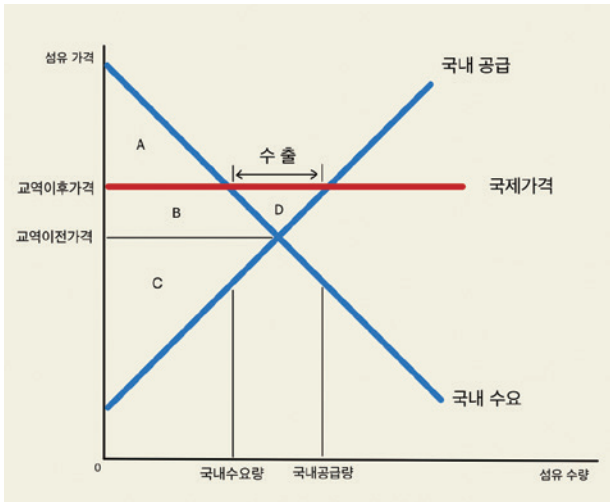


그림 2.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

수입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아이소랜드에서 교역 이전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고 하자. 그러나 자유무역이 개시되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같아진다. 따라서 [그림 3. 국제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역 후의 국제가격에서는 국내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부족하므로 그 부족분을 외국에서 구

입해야 한다. 즉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입국이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국제가격 수준에서 수평적인 직선은 세계 시장의 공급곡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공급곡선이 무한 탄력적인 것은 아이소랜드가 작은 경제이고, 따라서 국제가격에서 섬유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무역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자. 물론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의 결과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공급자들이 손실을 본다. 소비자잉여의 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가 각각의 이득과 손실이다. 교역이 있기 전에는 소비자잉여가 A이고, 생산자잉여는 B + C이다. 따라서 총잉여는 A + B + C이다. 교역이 개시된 후의 소비자잉여는 A + B + D가 되고, 생산자잉여는 C가 된다. 따라서 총 잉여는 A + B + C + D가 된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교역의 결과 수입국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 알 수 있다. 수요자들이 소비자잉여 증가분 B + D만큼 이득을 보고, 공급자들은 생산자잉여 감소분 B만큼 손실을 본다. 그런데 수요자들의 이득이 공급자들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총 잉여는 D만큼 증가한다. 수입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에서 수출국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수입국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생산자들은 손실을 본다.
- 국제무역의 결과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이제 이 분석을 통해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아이소랜드가 섬유시장을 개방한다면, 그 결과 섬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득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을 해주더라도 여전히 전보다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가? 현실적으로 패자에 대한 보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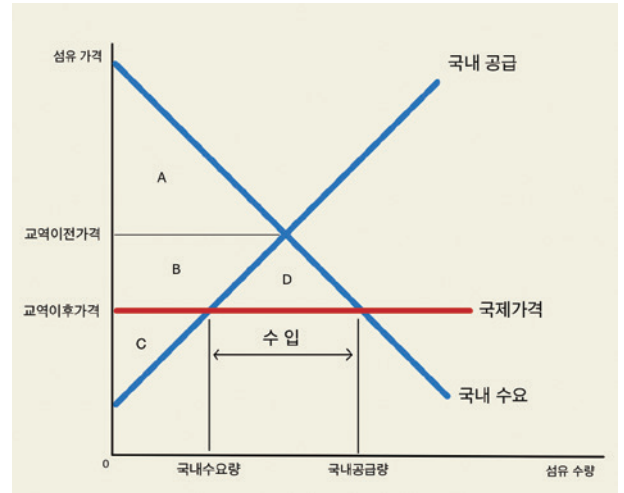


그림 3. 국제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

을 통한 자유무역은 분명 나라 전체의 경제적 파이(pie)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승자와 패자 간에 그러한 보상이 없다면 일부 국민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작아질 수도 있다.

이제 무역정책에 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변화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낼 때마다 정치적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많은 국가가 자유무역의 패자들이 승자보다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보수정부와 결탁한 자본을 독점한 세력이 자유무역의 이득만 취하고 자유무역의 패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무역정책에 대한 결론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1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유무역이 허용된다면 아이소랜드의 섬유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질 것입니다. 국제가격이 지금의 국내가격보다 높다면 섬유의 국내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국내가격이

높아지면 섬유의 국내 소비량은 줄고, 국내 생산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소랜드가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다면 섬유의 국내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섬유 가격이 낮아지면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섬유의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이 아이소랜드에 비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 2 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국내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시장 개방 후 국내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수요자들은 손실을 볼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은 손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국가적으로 무역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아이소랜드의 국익은 증가할 것입니다.

국제무역의 또 다른 이득

아이소랜드 경제학자들의 결론은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분석에 입각한 것이다. 그들의 분석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수단인 수요와 공급,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한 나라 경제가 무역을 자유화하면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지만,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실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이런 단순한 경제적 잉여의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 **다양한 소비 기회의 제공** :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독일 맥주가 반드시 우리 맥주와 같은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 : 어떤 재화는 대

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른다.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자유무역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 **경쟁의 촉진** : 해외에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이 있어 국내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유무역은 경쟁을 촉진하여 보이지 않는 손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 국가 간 기술의 전파는 많은 경우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재화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가난한 농업국가가 컴퓨터 혁명을 경험하는 것은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외국에서 최신 기종의 컴퓨터를 구입할 때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기술의 전파를 촉진한다.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이런 점까지 언급했다면 그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그 밖의 상반된 논리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는 자유무역의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예에서 아이소랜드의 섬유 시장 개방은 국내 섬유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섬유생산과 섬유산업의 고용을 줄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소랜드의 섬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한편으로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아이소랜드가 다른 나라에서 섬유를 수입할 때

다른 나라들은 아이소랜드에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재화를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아이소랜드의 섬유 근로자들은 섬유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겠지만, 아이소랜드 전체 국민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피해를 본 섬유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가 가장 어려운 과제다. 승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자는 초딩스런 말은 하지 말자.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자유무역의 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한히 나올 것이고, 승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승자임을 부인할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해결책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무역의 승자인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승자 편을 들고 패자들의 항의는 짓밟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의 주장에 따라, 총 잉여가 증가했으니 좋은 것이라고 통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전담조직을 만들어도 힘든 상황에 정부를 작게 하자는 주장은 그냥 자유무역의 패자들은 조용히 사라져 달란 말과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불러와 자유무역으로 증가한 총 잉여를 다 까먹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유력 정치인이 있는 모양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정부 부처를 겨냥한 발언인 듯하다. 소수자 배려나 역사적 과제를 경제학의 원리로 판단하면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켜봐 왔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시장논리를 통해 극복될 수 없다. 모든 나라가 확대된 정부조직을 통해 접종, 감염 차단,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정당한 합의이다.

유치(幼稚)산업 보호 논리

새로 시작한 산업들은 그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숙하여 외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부 오래된 전통 산업들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체로 의구심을 갖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치산업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산업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어느 산업이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남을지, 이 산업이 살아남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치러야 할 대가를 능가할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승자 알아맞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와 같은 <맨큐의 경제학>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민망할 정도로 맞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는 철저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었다. 관세장벽을 통해 중화학공업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해 키워왔고, 현재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가 되었다. 이들 산업군이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아 성장해 온 것이 대한민국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했던 가발산업의 비교우위를 믿고 그 가발산업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2020년 1인당 GDP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제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경제학의 교과서는 어쩌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막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유치산업은 보호해야 소용없고 제대로 하기도 힘들다며, 이미 지붕에 올라온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적 의심을 하게 된다. 대만, 한국, 최근의 중국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보호 육성해서 성장한 좋은 예들이다. 이 경제학 교과서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사회 경제 현상들도 많이 있다. 경제학은 물리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보다 더 좋은 도구를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 